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파견기간	18.08.15. ~ 18.12.08.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의 경우 학교에서 가입이 되는 것이었고, 비자는 대사관에 F1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의 경우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나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항공권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 행으로 왕복으로 끊었습니다. 왕복 날짜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돌아오는 비행은 추후에 원하는 날짜로 정할 수 있는 오픈티켓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7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대략적인 날짜를 정하고 날짜를 변경 시에 10만원 정도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타지에 오랜 기간 나가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했지만 어느 곳이나 한인마트는 있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기구는 전력이 달라서 어댑터를 연결하여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미국은 영어권 국가이고,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례의 표현이나 감사의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한국과는 달리 모든 부분에 세금이 따로 추가되어 계산되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영어권 국가를 찾아봤고, 미국의 텍사스의 안젤로 주립대와 시카고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을 고민하다가 명성이 높은 일리노이 공과대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공항셔틀버스를 사전에 예약하고 갔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전공은 IT로 선택하였고, 강의는 영어강의와 전공과목 3개를 수강하였습니다. IT 전공이 벽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IT전공 2개와 비즈니스 전공 1개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였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IIT의 경우 기숙사는 MSV와 SSV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MSV는 오래된 기숙사여서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형태이고 SSV는 신설된

나-5. 교내·외 활동

수업을 위주로 생활하였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주된 식사는 교내의 식당을 이용하는데 신청을 할 때 같은 식사를 한 학기동안 하는 것이므로 많은 끼니 수를 신청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